

# 역사속으로

우리민족의 '근대인쇄' 시기를 따지자면 해방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해방

이전에는 근대식 인쇄가 별로 없었고 그나마 일제가 운영하던 인쇄소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의 인쇄역사 기록을 찾자면 1954년에 창간되어 오늘날까지 발행되고 있는 인쇄신문이 유일하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 역사를 더듬어 보는 의미에서 195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인쇄역사를 월별로 정리해 시리즈로 보도한다. 이번 호에는 1954년 이후 매년 9월에 보도되었거나 광고에 게재되었던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 국내 최초 자동주자기 제작 성공

활자 인쇄에서 활자는 가장 중요했다. 당시 수동 주자기 50여대가 서울신문사 등에 납품되는 것 외에 근근히 맥을 이어 오던 주자기 보급이 서울정기사(대표 이한식)에 의해 국내 최초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인쇄문화시보는 1957년 9월5일자(제56호)를 통해 외산에만 의존해 오던 국내 인쇄 시장을 자세히 소개하며 중세기적인 기술 수준을 담보하고 있는 현실을 비중있게 다뤘다.

특히 자동 주자기에 대한 활자의 제작으로 시간, 비용, 인건비 등이 크게 절감될 것이라는 부분을 강조했다. 서울정기사는 당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정밀 공업사로 이미 수동 주자기를 제작, 공급하고 있던 업체다. 인쇄문화시보는 이한식 대표가 걸어온 길과 직원들의 노고를 높게 평가하며 향후 자모조각기도 개발할 방침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쇄업계 타격

1963년 9월25일자(제190호) 인쇄문화시보는 당시 시대 불황과 맞물린 인쇄업계의 상황을 소개하며 인쇄요금 인상을 1면에 다뤘다. 게재된 기사의 주된 골자는 치솟는 원자재 비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서울시인쇄협동조합 회의에서 결의된 이번 내용은 특히 소모품으로 가장 많은 수요를 보이고 있는 수입 인쇄잉크를 비롯, 제지류 등 각종 인쇄 재료값에 대한 업계의 자구책 마련에서 비롯됐다. 시보는 또한 적용되고 있는 기준인쇄요금에 국내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점을 지적한 뒤 3, 4년전 요금으로 거래되는 일이 비일비재함을 지적했다. 이는 곧 출혈 경쟁으로 이어져 인쇄업계의 존립 자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당국의 각종 원료수급에 강력한 시책 적용과 고시가격에 의한 가격억제책 등이 제시됐다.

## 제1회 상표 및 포장전시회 개최

1965년은 상표 및 포장 전시회가 처음으로 개최된 해였다. 부산상공회의소가 주최하고 부산시 인쇄공업협동조합의 후원으로 이뤄진 전시회는 9월21부터 26일까지 6일간 부산공보관에서 열렸다. 인쇄문화시보 1965년 9월15일자(제303호)에 게재된 전시회는 상표와 포장에 관련된 첫 출발이었음을 강조하며 이와 더불어 급변하고 있는 인쇄업계의 관심도를 반영했다.

하지만 시보는 긍정적인 측면 이외에도 인쇄·포장·미술·자료업자 등의 저변확대를 위한 전시회보다

는 시기적으로 급박하게 진행된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는 당초 주최측의 의지와는 달리 상표·포장·기술 전시부 등에 의한 제한적인 참가 신청과 신청 마감일이 급박하게 조정된 점을 들어 형식적인 전시회에 머물렀다는 평을 내렸다.

### 인쇄공장 신설 제약

1972년 9월1일자(제461호) 인쇄문화시보는 인쇄 등 18개 업종 공장에 대한 신설이 억제된다는 내용을 1면 머릿글 기사로 게재했다. 시보는 상공부의 말을 인용해 제조공장의 신고제 실시에 따라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히고 있다. 상공부는 발표문에서 소비재 및 과당 경쟁업종에 대해 공장 신설을 억제한다는 방침을 정한 뒤, 업종별 적정규모를 책정해 미달되는 공장 건설도 적극적으로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쇄업종을 비롯한 18개 업종의 신규 공장 신설이 큰 제약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보는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제조업을 억제하는 정책은 다른 한편에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라는 인쇄업종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 사무용품 인쇄물 추가 지정

사무용품이 인쇄물로 지정됐다. 하지만 책자 및 오프셋 인쇄물은 제외됐다. 1974년 9월15일(제505호) 인쇄문화시보에 게재된 이 기사는 조달청을 비롯, 각 기관의 구매 물자를 책자 및 오프셋 인쇄물을 제외한 전 품목에서 단체수의 계약이 이뤄질 수 있게 됐음을 다루고 있다.

재무부가 회계예규를 개정해 공시한 이같은 사항은 인쇄업계가 정

부에 수차례에 걸쳐 요구한 것으로 종전에는 조달청 구매 물자 중 인사·재무·일반행정 등 공통서식만이 지정, 운영됐다.

### 고려대장경 최고본 발견

1976년, 팔만대장경보다 무려 180년이나 앞서는 고려대장경이 발견됐다. 인쇄문화시보는 9월1일자(제547호) 보도를 통해 '고려대장경 최고본 발견'이라는 기사를 머릿글로 다뤘다. 밀랍을 칠한 제지로 싸여 두루마리로 발견된 고려대장경은 현존하는 최고 목판으로 기록됐다. 시보는 인쇄문화연구에 획기적인 성과물로 기록됐다고 평했다. 또한 고대사적 유물을 연구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려대장경은 현종 2년(1011년)에 착수해 선종 4년(1087년)까지 76년 동안에 걸쳐 제작됐다. 그 후 의천에 의해 재차 완성됐으며 덕장경으로 불리기도 했다.

### 인쇄기술 선정 12건

인쇄문화시보는 1977년 9월15일자(제570호)를 통해 과학기술처가 인쇄기 도입 시 필요한 기술 12건(총 1700종)을 선정한 내용에 대해 보도했다.

과기처가 밝힌 선정 배경에 따르면 기술 수요에 대처하고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시보는 경제개발 4차 5개년 계획 중(1977~1981년) 우리나라가 시급히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기술에 대해 이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인쇄와 관련된 설계 및 제조기술 도입 건은 롤러, 출판용 다색 그라비아 운전기, 시트 패드, 잉크 공급시스템, 양면 4색, 웹, 페이퍼가이드 등이 선정됐고 이밖에 그라비아 운전기의 펀트자동제어시스템도 포함됐다.

<장홍일 기자>